



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차관보 임명...
17개월 공백 해소
1년 5개월 만에 대사직 정상화...
외시 22회 정통 관료 출신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Vol. 98



오름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um@gmail.com
www.orum.co.id indocity199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신년사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KOGA) 회장 신년사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회장 김화롱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봉제 산업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글로벌경기 둔화와 미국관세 이슈, 원가 상승,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봉제 산업 전반에 많은 도전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오랜 현장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도네시아 봉제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속가능경영, ESG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생산 경쟁력을 넘어 품질, 납기, 윤리경영, 그리고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는 새해에도 회원사 간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 노무·통관·관세 등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현지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회원사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동반합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함께 대응한다

면, 우리 봉제 산업은 더욱 단단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협회와 회원사 모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사업 번창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회장 김화롱 드림

신년사

적토마의 기운으로 도약하는 2026, “함께해서 든든한 한인 공동체” 위대한 한인 사회의 저력으로 여는 새로운 내일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인도네시아 방방곡곡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오늘을 일구고 계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적토마(赤兔馬)의 지혜와 기운이 넘치는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도네시아의 급변하는 전환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낯선 제도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 한인 사회는 결국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의 결집된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기업을 일구며 국위를 선양하시는 기업인 여러분, 낯선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단단히 가꾸며 우리 사회의 뿌리가 되어주신 분들,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헌신하시는 학부모님들까지,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인 사회의 화합과 위상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신 각 단체와 기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장 뒤편의 묵은일과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차세대 성장에 향한 아낌없는 지원은 우리 한인 사회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은 세계 속에서 빛나는 재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든든한 기



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라 참 든든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긍심은 바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2026년은 한-인니 양국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인회는 다음의 목표를 향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보호받는 한인 사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비상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창구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가 꿈을 꾸는 미래 지향적 한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셋째, ‘소통하고 하나 되는 열린 한인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육·교류 활동을 통해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유관 기관과 한 팀이 되어 교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생활 지원 그리고 양국 간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은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배려 깊은 말 한마디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모여 우리 한인 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연대는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한인회는 연대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맞추어 뛰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인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2026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김종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신년사] 윤순구 대사 “동포 안전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도 세계도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안정적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2026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및 경제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이 상호 보완적 경제안보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 지난 50여년간 제조업 협력에서 시작하여 에너지·철강·건설·플랜트 등 기반 산업 협력에서부터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를 아우르는 K-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는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한 데에는 각 분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포분들의 남다른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지난 11월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안보·방산 및 문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이러한 정상간 합의가 모든 인도네시아 재외동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소통하면서 ‘팀 코리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 모두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앞으로도 동포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차세대 동포

의 정체성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병오년은 붉은 태양의 기운을 품은 말의 해로, 뜨거운 열정과 힘찬 도약,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전진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병오년의 기운처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인 동포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윤순구

인니 섬유업계, 대미 의류섬유 관세 재협상 요구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가 의류 및 섬유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한 인하하기 위해 미국과의 통상 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현재 적용 예정인 19% 상호관세가 노동집약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요구는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포 경제조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해당 성명에서 장관은 광물 및 광유 등 ‘열대 천연자원 상품’에 한해 관세 면제가 적용되며, 인도네시아의 모든 대미 수출품은 여전히 19%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류 및 섬유와 같은 제조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협상팀을 이끄는 아이르랑가는 이번 결정이 내년 1월 말까지 뿌라보워 수비안포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상호무역협정(ART)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섬유협회(API) 제미 까르파와 회장은 지난 29일, 이번 결정이 인도네시아 최대 고용 산업 중 하나인 섬유·의류 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면제가 농업 기반 상품에만 국한해서는 안되며 의류 및 섬유와 같은 제조업 제품도 무관세 또는 최소한 현행 19%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의류 제품의 최대 수출 시장”



▲쇼핑몰 의류 판매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섬유 및 의류 산업 부문은 2024년 약 119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여 국내 최대 비석유·가스 수출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해당 산업은 다른 의류 생산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직면해 있다. 현재 미국의

수입 관세율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대해 19%, 베트남에 대해 20%, 라오스와 미얀마에 대해서는 최대 40%에 달한다.

제미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이 표면상 경쟁력 있어 보이지만, 물류 비용, 산업용 가스 가격, 상승하는 최저임금, 차입 비용 등 국내 비용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섬유협회(API)는 관세 인하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산 면화 수입 확대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국산 면화를 사용해 생산한 의류 및 섬유제품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면제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상호 호혜적 구조다. 업계는 이 방식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국 간 교역 확

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미국 면화 산업 단체인 국제면화협회(CCI)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의 일환이다.

이번 논의는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지난 7월 잠정 합의한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해당 합의에 따라 미국은 당초 예고했던 32% 관세를 19%로 낮췄으며, 인도네시아는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약 19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또한 협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미국 측과 별도의 34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기술OK



신뢰OK



안전OK



삼성물산



KOGA ... 인도네시아 의류, 섬유협회회장과의 회동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의는 지난 17일 자카르타의에서

인도네시아 의류 및 섬유협회 (AGTI)회장인 IBU, ANNE 와 비서 PAK, RIZAL과 함께 대정부 관련 미팅을 가졌다. 이날 미팅에는 KOGA 김화룡 회장 이규백수석부회장, 김태식사무총장이 KOGA를 대표하여, 대 정부 민원 협력방안 및 AGTI가

입 관련하여 미팅을 하였다. 점점 힘들어져가는 글로벌 불황에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의 봉제협회 회장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불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로 향후 상호상생의 협의를 보이는 자리였다.

[편집부]

코가 상임사 및 회장단 연말 모임

지난 13일 토요일 까라왕 로터스 골프클럽에서 코가 회장단 및 상임사 연말 모임이 있었다. JS 자카르타 박익중 법인장, 한솔 김선 법인장, 한세 염정운 법인장, SJC 홍희준법인장, 세아 최만철 비롯한 김흥기 부회장, 황삼연 자문위원, 김일태 부회장, 윤정민 대외협력부회장, 김동석 재외협력부회장, 강원구 재무부



회장, 모락스고정운 법인장, 서광호 수석부회장, 이규백 수석 부회장등 24명이 참석했다.

한해 동안 수고한 상임사와 회장단의 수고를 감사하고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 2026년 새해에는 한걸음 성큼 내딛을수 있는 강력한 코가를 만들어 보자는 의지를 나누었다.

코가 상임사와 회장단은 코가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원으로써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항상 앞장서는 코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편집부]

2025 코가 회장단 및 자문단 회의 열려



지난 12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코가 활성화 방안을 위한 회장

단 및 자문단 회의가 있었다. 참석 자문위원은 김재훈, 김민규, 임수지, 함상욱 자문의원이 참석하였고 김화룡 회장, 이규백 수석 부회장, 강원구 재무 부회장, 김태식사무총장, 박시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아야산 설립이후

코가 활성화 방안과 회원사의 권익증대를 위한 논의를 하였고 향후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의 이슈와 사안에 대해 폭 넓은 멘토와 정보제공을 약속했다.

[편집부]

KOGA, 박수덕 대사 대리 귀국 송별회



지난 12월 5일 KOGA는 박수덕 대사 대리의 한국 귀국 송별회를 자카르타 예원 레스토랑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수덕 대사 대

리과 한중호 상무관, 문준식 서기관이 함께했고 KOGA 김화룡 회장과 코가 대표 상임사인 두산 배도운 회장과 안창섭 코가 명예 회장, 서광호 수석부회장, 이규백 수석부회장, 강원구 재무부회장, 김동석 대외협력부회장, 김형근 대외협력부회장, 김태식 사무총장, 박시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KOGA는 재임기간 봉제협회 코가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박수덕 대사대리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편집부]

한 해를 보내며 ... 수방 골프대회

지난 11월 29일 토요일 보고르 자고라워 골프클럽에서 수방 지역 봉제회원사의 연말 친선 골프모임이 있었다.

KOGA 대표 상임사인 한솔을 비롯해 월비스, 성보자야, 대농 등 코가 회원사와 김화룡 회장, 이규백 수석 부회장, 강원구 재무



부회장 등 코가 회장단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24명의 회원사가 수방 연말 모임에 함께 했다.

최근 많은 글로벌 이슈로 우리 봉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함께 뭉치고 결속력있는 경영으로 이겨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고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새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을 당당하게 극복하자는 연말행사를 가졌다.

[편집부]

2026 전국 최저임금 발표... 자카르타 최저임금 6.17% 인상, 월 573만 루피아

전국 최고 브카시 시 Rp5,999,443... 최저 블로라 군 Rp2,345,695

자카르타주정부를 비롯한 전국 28개 주 및 시·군의 2026년 최저임금이 24일 발표됐다. 자카르타주는 내년 최저임금(UMP)을 6.17% 인상해, 올해의 5,396,761루피아/월에서 5,729,876루피아(약 342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쁘라모노 아농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번 인상액은 약 33만 루피아에 해당하며, 자카르타 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다양한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서부자바주 브카시 시(Kota Bekasi)로 5,999,443루피아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중부자바주 블로라 군으로 2,345,695루피아이다.

쁘라모노 주지사는 “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알파 계수를 0.75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됐으며, 자카르타의 물가상승률

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식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해 알파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알파 계수는 경제성장의 어느 정도를 임금 인상에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주 또는 군·시 단위 임금위원회가 고용 흡수력과 평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 새 임금 산정 공식에서는 알파 범위가 0.5~0.9로 확대됐으며, 이는 기존 공식의 0.1~0.3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뿌라모노 주지사는 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자카르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주로부터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BPJS Kesehatan) 가입 지원, 그리고 주 정부가 운영하는 상수도회사 PAM Jaya가 제공하는 상수도 요금 보조 등이 포함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Air Cargo



Sea Cargo



Warehouse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2026년 지역별 최저임금

PROVINSI	KOTA / KABUPATEN	2025	2026
DKI JAKARTA	KOTA JAKARTA	Rp 5,396,761	Rp 5,729,876
BANTEN	Kabupaten Pandeglang	Rp 3,206,640	Rp 3,360,078
	Kabupaten Lebak	Rp 3,172,384	Rp 3,330,010
	Kabupaten Serang	Rp 4,857,353	Rp 5,178,521
	Kabupaten Tangerang	Rp 4,901,117	Rp 5,210,377
	Kota Tangerang	Rp 5,069,708	Rp 5,399,405
	Kota Tangerang Selatan	Rp 4,974,392	Rp 5,247,870
	Kota Cilegon	Rp 5,128,084	Rp 5,469,922
	Kota Serang	Rp 4,418,261	Rp 4,665,927
	Kota Bekasi	Rp 5,690,752	Rp 5,992,931
WEST JAVA	Kabupaten Karawang	Rp 5,599,593	Rp 5,886,852
	Kabupaten Bekasi	Rp 5,558,515	Rp 5,938,885
	Kabupaten Purwakarta	Rp 4,792,252	Rp 5,052,856
	Kabupaten Subang	Rp 3,508,626	Rp 3,737,482
	Kota Depok	Rp 5,195,721	Rp 5,522,662
	Kota Bogor	Rp 5,126,897	Rp 5,437,203
	Kabupaten Bogor	Rp 4,877,211	Rp 5,161,769
	Kabupaten Sukabumi	Rp 3,604,482	Rp 3,893,201
	Kabupaten Cianjur	Rp 3,104,583	Rp 3,338,359
	Kota Sukabumi	Rp 3,018,634	Rp 3,192,807
	Kota Bandung	Rp 4,482,914	Rp 4,737,678
	Kabupaten Bandung Barat	Rp 3,736,741	Rp 3,990,428
	Kabupaten Sumedang	Rp 3,732,088	Rp 3,949,855
	Kabupaten Bandung	Rp 3,757,284	Rp 3,972,202
	Kabupaten Indramayu	Rp 2,794,237	Rp 2,910,254
	Kota Cirebon	Rp 2,697,685	Rp 2,878,646
	Kabupaten Cirebon	Rp 2,681,382	Rp 2,880,797
	Kabupaten Majalengka	Rp 2,404,632	Rp 2,595,368
	Kabupaten Kuningan	Rp 2,209,519	Rp 2,369,379
	Kota Tasikmalaya	Rp 2,801,962	Rp 2,980,336
	Kabupaten Tasikmalaya	Rp 2,699,992	Rp 2,871,874
	Kabupaten Garut	Rp 2,328,555	Rp 2,472,227
	Kabupaten Ciamis	Rp 2,225,279	Rp 2,373,643
	Kabupaten Pangandaran	Rp 2,221,724	Rp 2,351,250
	Kota Banjar	Rp 2,204,754	Rp 2,361,777
CENTRAL JAVA	Kota Semarang	Rp 3,454,827	Rp 3,701,709
	Kabupaten Demak	Rp 2,940,716	Rp 3,122,805
	Kabupaten Kendal	Rp 2,783,455	Rp 2,992,994
	Kabupaten Semarang	Rp 2,750,136	Rp 2,940,088
	Kabupaten Kudus	Rp 2,680,485	Rp 2,818,585
	Kabupaten Cilacap	Rp 2,640,248	Rp 2,773,184
	Kabupaten Jepara	Rp 2,610,224	Rp 2,756,501
EAST JAVA	Kota Surabaya	Rp 4,961,753	Rp 5,288,796
	Kabupaten Gresik	Rp 4,874,133	Rp 5,195,401
	Kabupaten Sidoarjo	Rp 4,870,511	Rp 5,191,541
	Kabupaten Pasuruan	Rp 4,866,890	Rp 5,187,681
	Kabupaten Mojokerto	Rp 4,856,026	Rp 5,176,101
	Kabupaten Malang	Rp 3,553,530	Rp 3,802,862
	Kota Malang	Rp 3,507,693	Rp 3,736,101
	Kota Batu	Rp 3,360,466	Rp 3,562,484
	Kota Pasuruan	Rp 3,358,557	Rp 3,555,301
	Kabupaten Jombang	Rp 3,137,004	Rp 3,320,770
	Kabupaten Tuban	Rp 3,050,400	Rp 3,229,092
	Kota Mojokerto	Rp 3,031,000	Rp 3,208,556
	Kabupaten Lamongan	Rp 3,012,164	Rp 3,196,328
	Kabupaten Probolinggo	Rp 2,989,407	Rp 3,164,526
BALI	Kota Probolinggo	Rp 2,876,657	Rp 3,045,172
	Kabupaten Jember	Rp 2,838,642	Rp 3,012,197
	Kabupaten Banyuwangi	Rp 2,810,139	Rp 2,989,145
	Kota Kediri	Rp 2,572,361	Rp 2,742,806
	Kabupaten Bojonegoro	Rp 2,525,132	Rp 2,685,983
	Kabupaten Kediri	Rp 2,492,811	Rp 2,651,603
	Kota Blitar	Rp 2,481,450	Rp 2,639,518
	Kabupaten Tulungagung	Rp 2,470,800	Rp 2,628,190
	Kabupaten Lumajang	Rp 2,429,764	Rp 2,578,320
	Kota Madiun	Rp 2,422,105	Rp 2,588,794
	Kabupaten Blitar	Rp 2,413,974	Rp 2,567,744
	Kabupaten Magetan	Rp 2,406,719	Rp 2,553,866
	Kabupaten Sumenep	Rp 2,406,551	Rp 2,553,688
	Kabupaten Nganjuk	Rp 2,405,255	Rp 2,564,627
	Kabupaten Ponorogo	Rp 2,402,959	Rp 2,549,876
	Kabupaten Madiun	Rp 2,400,321	Rp 2,553,221
	Kabupaten Ngawi	Rp 2,397,928	Rp 2,556,815
	Kabupaten Bangkalan	Rp 2,397,550	Rp 2,550,274
	Kabupaten Trenggalek	Rp 2,378,784	Rp 2,530,313
	Kabupaten Pamekasan	Rp 2,376,614	Rp 2,528,004
	Kabupaten Pacitan	Rp 2,364,287	Rp 2,514,892
	Kabupaten Bondowoso	Rp 2,347,359	Rp 2,496,886
	Kabupaten Sampang	Rp 2,335,661	Rp 2,484,443
	Kabupaten Situbondo	Rp 2,335,209	Rp 2,483,962
DI YOGYAKARTA	Yogyakarta	Rp 2,417,495	Rp 2,827,593
BALI	Badung	Rp 3,534,338	Rp 3,791,002
	Denpasar	Rp 3,298,116	Rp 3,499,878
	Gianyar	Rp 3,119,080	Rp 3,316,798
	Tabanan	Rp 3,102,520	Rp 3,287,678
	Klungkung	Rp 2,996,561	Rp 3,207,459
	Karangasem	Rp 2,996,561	Rp 3,207,459
	Bangli	Rp 2,996,561	Rp 3,207,459
	Jembrana	Rp 2,996,561	Rp 3,207,459
	Buleleng	Rp 2,996,561	Rp 3,207,459
Kalimantan Timur	Kota Samarinda	Rp 3,724,437	Rp 3,983,882
	Kota Balikpapan	Rp 3,701,450	Rp 3,856,694
Kalimantan Selatan	Kota Banjarmasin	Rp 3,599,182	Rp 3,855,894
Kalimantan Tengah	Palangkaraya	Rp 3,525,154	Rp 3,686,138
Kalimantan Barat	Pontianak	Rp 3,024,820	Rp 3,205,220
Kalimantan Utara	Kota Tarakan	Rp 4,460,405	Rp 4,740,000
	Kabupaten Nunukan	Rp 3,652,907	Rp 3,870,000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지속 가능한 섬유의 미래 : Textiles Recycling & Fiber-to-Fiber, 그리고 봉제기업의 기회

글로벌 패션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섬유 폐기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과 자원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재활용을 넘어, 폐섬유를 다시 실(fiber)이나 원단으로 되돌리는 Fiber-to-Fiber 재활용, 즉 섬유 순환(Circular textiles)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750만톤의 섬유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은 연간 9,200만톤이 넘는다고 하며, 새옷으로 다시 Recycling 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Source : McKinsey & Company market study July 2022)

유럽과 주요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와 기술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ANDRITZ 는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설비를 통해 폐(공정 후 또는 소비 후) 섬유를 새 원사나 부직포(Non-woven), 심지어 원단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Tota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재활용이 중요한가?

유럽연합(EU)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기존의 폐섬유 처리 방식은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에 의존했고, 재활용된 제품은 청소용 걸레,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 등 낮은 부가가치 제품이 많았습니

다.

그러나 Fiber-to-Fiber 기술은 섬유 고유의 품질(섬유 강도, 길이, 촉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원사나원단으로 되돌려, 새 제품과 같은 품질을 목표로 합니

지금부터 시작해볼 수 있는 실천 항목

1. 공정 잔사 및 절단 잔여 원단 수집 체계 구축
2. 재활용 설비 또는 재활용 소재 공급사와의 협력 검토

수 위치한 만큼, 지금이 섬유 순환혁명(Circular Textile Revolution)에 동참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2026년 산업성장은 'AI'가 이끈다...섬유패션업종은 '대체로 맑음'

대한상의, 11개 주요 업종별 '2026년 산업기상도'



내년 산업기상도는 AI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섬유패션은 '대체로 맑음'이 예상됐으며, 중국과 경쟁중이고 관세외품이 두드러지는 유화, 철강, 기계 등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분석한 '2026년 산업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석유화학·철강·건설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붉은 말'의 해 AI 성장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디스플레이 등 'R.E.D' 업종의 성장이 예상된다.

섬유패션산업은 '대체로 맑음'이다. APEC 이후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고부가 패션 상품의 수요 증가,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등으로 2026년 수출은 올해 대비 2.0% 증가한 99.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체감물가 상승 및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교역 둔화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지적됐다.

내년 가장 주목받는 산업은 'AI'가 이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다. 반도체 산업의 올해 수출은 16.3% 성장, 내년 수출은 9.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경쟁으로 HBM 등 고부가 D-RAM에 대한 수요 확대

가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도 '맑음'이다. AI데이터센터 서버의 소비전력 증가에 따른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AI 후방산업인 배터리는 '대체로 맑음'으로 예상된다. AI데이터센터 서버의 소비전력 증가에 따른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바이오, 자동차, 조선 산업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고, 기계,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흐림' 전망을 받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

혁신본부장은 "내년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전 업종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할 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인도네시아 전역, 홍수와 악천후로 식료품 가격 급등

정부 “생산량 아닌 유통 문제”



인도네시아의 주요 필수 식료품 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르는 추세이며, 북부 수마트라 지역의 광범위한 홍수와 지속적인 폭우 등 이상 기후가 원인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악천후로 농산물 수확과 유통에 장애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 바왕메라(살로, 작은 붉은 양파) 가격(kg당)은 11월에 비해 약 11.12%나 급등하

며, 평균 45,165 루피아를 기록했다. 붉은 고추 가격 역시 월별로 11.7% 상승한 59,898 루피아에 이르렀는데, 이는 정부의 기준 가격을 모두 넘어서는 수치이다. 특히 파푸아 고산 지역의 누두가 군에서는 붉은 고추 가격이 kg당 무려 200,000 루피아까지 치솟기도 했다.

정부의 진단: 생산량은 문제없으나 수확 및 유통 차질
무역부 장관은 현재 살로와 고추의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상황이지만, 지속되는 악천후로 인해 농산물 수확 작업 자체가 어려워져 공급이 지연되고 있

다고 진단했다. 장관은 비가 올 때는 원하는 대로 수확할 수 없으므로, 수확 과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폭우와 홍수 같은 이상 기후가 유통망 자체를 교란하여 결국 식료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탐 지역의 심각한 공급 문제
수마트라 지역에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는 리아우 제도의 바탐 지역 신선 상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아체, 북부수마

트라, 서부수마트라, 잠비 등 주요 고추 생산지에서 악천후로 수송이 어려워지면서 고추 공급 유통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수마트라 지역에서 공급이 끊기자, 바탐은 자바와 서부누사 가라로부터 대체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체 공급은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더 높은 실정이다. 바탐 산업무역국 관계자는 고추는 유통기한이 3~5일로 짧아서 시장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 상승의 영향 및 연말 전망
이러한 가격 상승은 가정에서 요리하는 일반 시민들의 일일 장보기 예산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운 음식을 피하고 고추 사용량을 줄이는 등 소비를 줄이고 있다. 바탐 시장은 연말까지 기본적인 식량 재고는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고추와 달걀은 생산지가 자연재해 영향을 받아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3kg LPG 용기 공급 부족 문제도 나 타남에 따라 시 당국은 추가 할당량을 요청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부방위, 재판 중 한국인 피고 상대로 금품 갈취 검사 입건

인도네시아의 독립적 반부패 수사·기소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KPK)가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한국 국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반뜰주 검찰청 소속 검사를 입건했다. 20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전날 자카르타와 반뜰에서 진행된 KPK의 수사 과정에서 다른 8명과 함께 체포됐다. 부디 브라세티오 KPK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한국 국적 피고인이라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한국 국적자가 법 집행기관 소속 인사로부터 갈취를 당한 혐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부디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 모 씨는 데이터 절도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입건된 검사가 한국 국적 모 씨에게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

해졌다. 대변인은 이어 “검사는 협박하는 방식으로 더 무거운 실형 구형, 재판 과정 중 구금, 기타 위협 행위가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검사 외에도 피고인의 법률대리인과 법원 통역인도 함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디 대변인은 KPK가 이 사건을 이미 이틀 전 자체 조사를 시작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 체포 과정에서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로부터 현금 약 9억 루피아(약 5만4천 달러)를 압수했다. 부디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법 집행기관 관계자가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특히 중대하다며,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김재훈의 세무상식

“12월 갑근세는 TER 대신 소득세법 제 17조 요율 적용”

갑근세(PPh21) 계산 규정이 23년 12월 27일 정부령 58/2023호가 공표되었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거의 복잡한 계산 방식에서 24년 1월부터는 한국과 비슷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 TER (Tarif Efektif rata-rata : 월평균 실효세율)를 적용하여 월소득에 TER를 곱하여 산출한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과세 기간 동안 정규직 직원에 대한 소득세법 제 21조 갑근세는 월평균 실효세율(TER)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세법 제 21조 갑근세는 소득세법 제 1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국은 매월 급여 소득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공제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연말정산이라는 별도의 정산 과정이 없고, 1월부터 11월까지 TER를 적용하여 공제한 후 12월 신고시 한국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갑근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도 아주 오래전에는 한국과 동일한 연말정산 과정이 있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동일 방식으로 갑근세를 공제하고 1월에 다시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정산 과정 없이 12월에 1월부터 11월까지 확정된 소득에 12월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제 17조 요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한 후 1월부터 11월까지 공제된 갑근세를 차감하여 12월 갑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과세 기간 동안 공제한 갑근세가 연간 소득세 총액을 초과할 경우 갑근세 공제 의무자인 고용주(회사)는 초과된 갑근세를 근로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또한 “회사(고용주)는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원천징수 증명서(BPA1)를 소득 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령 제 7조 2항)



김재훈 대표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세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2025 글로벌 10대 뉴스

“트럼프가 흔들고 AI가 뒤집었다…불확실성 최고조”

2025년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폭탄과 함께 문을 열었다. 미국 신임 대통령이 주요 제조업 국가에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섬유패션업계 전체가 요동쳤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고 분절된 형태로 재편되는 와중에,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항소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으며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눈부신 한 해이기도 했다. AI웨어러블 · 스마트의류 · 전자섬유 등 각종 테크놀로지가 패션업계에 도입됐고, 고도화된 AI가 생산, 마케팅, 판매 및 물류 관리까지 혁신하며 브랜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패션업계의 다양성 후퇴,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첨예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관세전쟁 속에 럭셔리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둔화를 지속하며 양극화가 심화됐고, 과잉재고와 공급망 노동착취, 그린워싱 문제에 휘말렸다.

다수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여행 · F&B · 호스피탈리티 등 사업확장을 통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중국 패션계는 해외브랜드 인수와 자체 브랜드 강화로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 · EU의 집중 감시를 받는 중국계 울트라패스트 패션 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유지와 더불어 규제 준수와 브랜드 이미지 관리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의류 재판매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익성 악화와 공급 과잉, 물류 병목과 품질 저하 같은 내부적 위기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다.

혼란의 2025년, 한국섬유신문이 주목한 10개의 기사를 통해 세계를 강타했던 불확실성과 혁신의 파고를 가늠해보자.



1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다…지구의 미래는?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밝힌 트럼프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 가스 시추를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재탈퇴하고, 그린 뉴딜을 종식시키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며, 모든 관세, 세금, 수입을 징수할 대외 세입청을 설립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의류재판매시장, 2029년 538조 원까지 크다

중고의류 재판매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2029년에는 53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인 전망이 나왔다. 중고의류 재판매시장은 지난해 15% 성장한 2270억 달러로 전 세계 의류시장의 9%를 차지했다. 또한 의류산업보다 2.7배 빠른 연평균 성장률 10%를 기록하며 올해 25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29년까지 367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 AI로 새 판 짜는 패션업계…

근데 왜 사람들은 AI모델을 싫어할까

AI가 패션업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콘텐츠 제작, 마케팅 및 커머스 방식, 운영 구조와 배송 관리, 심지어는 제품 디자인과 구매 경험까지 혁신하며 산업 전반의 전략적 핵심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동시에 소비자 신뢰 저하와 노동권, 다양성 및 투명성, 윤리의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4 ‘AI · 위고비의 역습’ 패션업계 다양성이 후퇴하고 있다

경기 불황 속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수익성 중심의 전략으로 회귀하면서, 모델 다변화, 맞춤 제작,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투자 항목이 축소되고 있다. 오젠폭, 위고비 등 체중 감량 치료제가 크게 유행하면서 미의 기준이 다시 ‘마른 몸’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5 디 미니미스 끝났지만… 쉬인 · 테무 “미국시장 포기 못해”

‘디 미니미스(800달러 이하 관세 면제 제도)’가 종료되면서 초저가 정책에 직격탄을 입었던 쉬인과 테무가 미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디 미니미스 종료 직후 테무의 미국 내 활동 사용자는 급감했고 매출 성장률 30% 이상 하락이 지속됐다. 쉬인은 같은 기간 약 12% 감소한 후 3월 이후 다시 20%대 성장을 기록했다.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6

EU ‘의류폐기물 개정안’ 결국 채택…패스트패션 지형 바뀔까?
유럽연합이 기존 ‘폐기물기본지침을 개정해 의류·신발·침구류 등 광범위한 섬유 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를 도입했다. 앞으로 브랜드와 소매업체, 온라인 판매자까지 포함해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모든 주체는 해당 제품이 수거·분류·재활용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7

“아크테릭스·슈슈통부터 쉬인까지” 차이나패션이 온다
중국 패션산업이 자체 브랜드로 글로벌 공략에 나서고 있다. 안타스 포츠와 리닝 같은 스포츠·아웃도어 기업부터 슈슈통, 유한왕 같은 신진 디자이너까지, 이제 중국 패션은 ‘세계의 공장’ 이미지를 벗고 다층적 전략과 브랜드 개성으로 글로벌 산업의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동시에 환경·문화·윤리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언어’에선 여전히 미숙한 부분도 드러난다.



8

AI·IoT·섬유컴퓨터…패션테크, 차세대 스마트폰 자리 노린다
패션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안경, 신발, 의류처럼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섬유컴퓨터 등 테크놀로지가 결합해 생체 데이터를 읽고 외부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 피드백을 주는 ‘입는 기기’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감도 높은 스타일과 최첨단 기술력을 융합한 패션테크는 이제 스마트폰을 뛰어넘을 차세대 핵심 인터페이스 자리를 노리고 있다.

9

먹고 마시고 여행하라…환대하는 럭셔리 시대
지금 글로벌 럭셔리업계의 화두는 ‘런웨이’가 아닌 ‘호스피탈리티’다. 경기 둔화로 사치품 구매는 감소세에 들어선 반면, ‘경험적 소비’가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며 수년간 럭셔리 호텔·크루즈·웰니스 스파를 포함한 하이엔드 호스피탈리티 시장 성장세가 패션분야를 압도할 전망이다.

10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민낯, 13개 럭셔리 하우스 덮친 노동착취 수사
이탈리아에서 럭셔리 공급망 전반을 겨냥한 구조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토즈·로로피아나·디올·아르마니 등 6개 브랜드가 노동착취 혐의로 법적관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최근 구찌·프라다·베르사체·돌체앤가바나·지방시·입생로랑 등 13개 브랜드가 추가로 조사대상에 오르며 중국계·이주노동자가 떠받치고 있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자카르타한국학교’로 새 출발”

자카르타한국학교(교장 이선아)는 2025년 12월 8일부로 학교의 교명을 자카르타한국학교로 변경하여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명 변경은 본교 재학생 및 입학 대상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제학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도네시아 외교부 및 교육부가 교명에서 ‘국제’ 명칭을 제외할 것을



▲JKS 웹사이트 캡처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학교 관계자는 영문 교명인 “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아 교장은 교명이 변경되어도 “자카르타한국학교는 인도네시아 속 한국 교육 허브로서 한국 교육의 명맥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KIA=데일리인도네시아]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파키스탄 섬유산업 시장, 수출 회복 속 에너지·환경 규제 대응이 경쟁력 좌우

원면 생산에서 홈텍스타일까지, 파키스탄 섬유 밸류체인의 현재와 미래
수출 반등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압력 확대

파키스탄 경제에서의 섬유산업 위치

파키스탄 섬유산업은 제조업·수출·고용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전략 산업이다. 파키스탄 정부 및 산업 통계에 따르면 섬유·의류 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40% 내외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여타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출 구조에서도 섬유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2023 회계연도(FY23)부터 2025 회계연도(FY25) 기간 동안 섬유(Textile Group)는 전체 수출의 약 54~56%를 차지했으며, 25회계연도(FY25) 기준 전체 수출 320억4049만 달러 중 섬유(Textile Group)는 178억8703만 달러, 55.8%로 집계됐다. 이는 파키스탄의 대외 경제 부문에서 섬유산업의 중요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 측면에서도 섬유산업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방직, 직조, 염색·가공, 봉제 및 물류 전반에 걸쳐 약 400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 다음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섬유산업은 단순한 수출 산업을 넘어, 경기 변동기에도 정책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수출 회복과 동시에 나타난 변동성 확대

FY25 기준 섬유 수출은 전년 대비 7.39% 증가하며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 증가율인 4.45%를 상회해, 섬유가 FY25 수출 회복을 주도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이 회복은 '완만한 개선'의 형

<파키스탄 Textile Group 수출액 추이(FY23~FY25)>

구분	FY23	FY24	FY25
수출액	165억 1000만 달러	166억 5600만 달러	178억 8700만 달러
전년 대비	-14.6%	+0.9%	+7.4%
전체 수출 중 비중	약 54%	약 55%	약 55.8%

[자료: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Pakistan Business Council]

태로 나타났으며, 최근 월별 흐름은 큰 변동폭을 보였다.

FY23은 파키스탄 섬유산업에 있어 뚜렷한 하락 국면이 나타난 시기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의류 소비가 위축됐고, 동시에 국내에서는 에너지요금 인상, 외환 부족에 따른 수입 제한, 원자재 조달 차질이 겹쳤다. 이러한 복합 요인으로 섬유 수출은 전년 대비 14.63% 감소했다.

다만, FY24에는 수출 감소세가 멈추고 정체 국면에 진입하였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0.9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급격한 하락 이후 '저점 통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시기 다수의 섬유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채택하였다. 가장 최근인 FY25에는 파키스탄 섬유산업이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Textile Group 수출액은 178억8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39%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대를 유지했다. 다만 이 회복은 산업 전반의 동반 회복이라기보다는, 특정 품목 중심의 선택적 회복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섬유산업 구조 전환 트렌드, 고부가가치 전환 압력의 확대

파키스탄 섬유산업은 방직, 직조, 염색·가공, 봉제에 이르는 비교적 완결된 섬유산업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수출까지의 내재

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점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글로벌 섬유·의류 시장 환경은 단순 중간재 중심의 경쟁력 보다는 가공·완제품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파키스탄 통계(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PBS)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3월 기준 섬유 그룹은 전체 수출의 53% 이상을 차지했다. 동시에 섬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작전 분기 대비로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회복 국면 속에서도 수요가 산업 전반에 균등하게 확산되기도는 경쟁력이 확보된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 단가, 품질, 납기, 인증 대응 역량이 수출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섬유산업 전반에서는 가공·완제품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압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비용·에너지·ESG 요인의 구조적 부상

최근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비용과 에너지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파키스탄 섬유 제조업은 현재 에너지·전력망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산업 성장에 상당 부분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생산원가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은

행의 섬유 부문 에너지 효율 및 탈탄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기술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 절감 잠재력이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배출 저감이 동시에 가능하다.

이는 에너지 효율 투자가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 원가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바이어의 조달 기준 역시 ESG, 환경 정보 공개, 공급망 투명성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효율과 환경 대응 역량이 파키스탄 섬유기업의 수출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제도, '지원 규모'보다 '예측 가능성'이 투자 의사결정을 좌우

섬유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 산업으로, 정책적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며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와 고부가가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현지 시장에서는 정책 지원의 규모보다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기업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에너지 비용 문제, 세금·관세 환급 지연, 투자 집행의 불확실성 등이 반복적으로 병목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즉, 무역 개혁과 재정 정상화 노력이 중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기후 리스크와 외부 충격이 전망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파키스탄 섬유산업이 정책 환경과 외생 변수의 영향을 동시

에 받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은 장기 계약과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섬유 산업 특성상 기업의 투자 및 생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2024/25년 이후 정책 환경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며, 정책 의지나 방향성보다는 실제 이행력(한급.전력.금융.설비투자)과 지속성이 산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화학 분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협력 수요 파키스탄 섬유·화학 업계를 대표하는 파키스탄 섬유염료산업협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파키스탄 섬유산업은 글로벌 수요 회복 조짐과 함께 중간재 및 고부가 화학소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염료, 기능성 화학소재, 특수 케미컬 분야는 섬유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협력 여지가 크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진전될 경우, 단순 교역 확대를 넘어 합작 투자와 산업 내 협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현지 파트너십 기반 진출은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및 우리 기업 대응 방안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핵심 트렌드는 단기 수출 증감보다, 고부가가치 전환 + 비용구조 개선 + ESG/공급망 요건 대응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 방향성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효율·탄탄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와도 이어져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접근은 섬유 원부자재 단순 공급보다는 산업 업그레이드형 협력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수출보다는 에너지 효율·절감 솔루션 등을 통한 고효율 선진기술 도입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공·품질·생산성 향상 설비/솔루션 등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섬유 염색·가공 공정의 품질 안정화, 불량률 감소, 납기 단축(고부가가치 전환의 기반) 기술을 제 공함으로써 시장 진입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SG/환경 대응 패키지로서, 에너지 효율과 더불어 측정·보고 체계(데이터화) 결합, 환경 설비 및 운영 컨설팅(바이어/규범 대응 기반)의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키스탄 섬유산업은 FY25 수출 회복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으나, 산업 전반의 경쟁 트렌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 회복 여부보다, 중장기적인 경쟁력 요소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하느냐가 향후 현지시장 진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자료: KOTRA 카라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 내년 460억불 돌파 전망 무역수지 흑자 210억 달러...138개국 수출 지속, 세계 3위 수출국 위상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이 내년 46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4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가 제시한 예측이다. VITAS는 베트남 섬유산업이 약 21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섬유산업이 국가 무역수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산업 내 국내 부가가치율은 약 52%로, 원자재 및 부품의 자급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현재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3위 섬유·의류 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자국 섬유제품은

13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이다. 미국향 수출은 내년에 약 18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며, 이는 전년 대비 11.75% 증가한 수준이다. 섬유 수출 품목 중에서는 의류가 약 38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베트남 기업들이 이미 2026년 1분기 말까지 납품할 물량에 대한 주문을 확보한 상태이며, 2분기 계약도 활발히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베트남 섬유제품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 국제섬유신문

재외동포청, 2026년 예산 1,127억 원 확정... 글로벌 네트워크 및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을 총 1,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1,071억 원)보다 56억 원(5.3%)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핵심 사업에 예산 집중 편성 재외동포청은 2026년 예산을 국정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 핵심 사업은 ① 귀환 동포 지원 강화, ②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③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④ 역사적 특수 동포 지원 등이다.

1.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및 교류 활성화

글로벌 한인 협력망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존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보완하는 통합 행사로 ‘세계한인대회’를 신설

한다. 또한, 해외 지역별 한인 사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륙별 한인회장대회’ 사업이 신규로 3억 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동포를 위한 순회영사 활동 지원 예산도 7.7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증액되어 맞춤형 영사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2. 차세대 교육 강화 및 청년 인재 육성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한글 학교 지원이 강화된다. ‘한글학교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2025년 186억 원에서 2026년 19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포 청년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이 신규로 30.9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 사업은 동포 청년을 국내로 유치하여 교육, 취업, 정착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3. 귀환 동포 및 역사적 특수 동포 지원

약 100만 명의 귀환 동포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체계가 정비된다. 특히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 예산은 6.9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늘어났다. 역사적 특수 동포 지원도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일부 예산 78억 원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주 90주년(2027년)을 목표로 하는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공사비도 3.5억 원에서 25.3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4.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동포청 내에 보안관제센

터가 신규로 27억 원을 들여 구축된다. 이는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동포 사회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신뢰받는” 동포 정책을 구현하여 국가가 동포 사회의 현안에 책임 있게 답하는 체계를 갖추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英, 나이키 · 라코스테 광고 금지... 그린워싱 단속 강화 ASA “지속가능성 표현 근거 부족” ... 온라인 광고 심사 강화 구글 검색광고 사용된 친환경 문구, 입증 기준 미달 판정

영국 광고표준국(ASA)이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나이키와 라코스테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온라인 광고가 입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금지 조치를 내렸다. ASA는 이들 브랜드가 ‘지속가능한 소재’, ‘지속가능 의류’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설명이나 검증 자료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문제가 된 광고는 구글 유료 검색광고 형태로 노출됐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영향이 실제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할 소지가 있었다고 ASA는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주장은 높은 수준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브랜드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키는 테니스 폴로 셔츠를 홍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소재’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재활용 또는 저영향 소재의 비중과 환경영향 저감 효과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ASA는 이러한 표현이 지

나치게 포괄적이며 조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라코스테의 아동복 광고 역시 ‘지속가능 의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ASA는 이 문구가 절대적 의미의 주장으로 분류되며 더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코스테는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강조했으나, 제품 전 생애주기에서 환경영향을 줄였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ASA는 나이키 · 라코스테 등 관련 광고를 모두 금지했으며, 향후 브랜드들이 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



계 보고에 따르면 ASA는 최근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모호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표현을 사전에 탐지하는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 나이키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

으며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라코스테는 추가 논평 요청을 받은 상태다.
 출처 : 국제섬유신문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